

순천시, ‘E-Bio 순천’… 그린바이오 산업 본격 시동

도농 통합도시 강점 극대화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해와
생태·정원 브랜드 기반 육성
기업 수요 반영해 기반 구축

전라남도 순천시가 미래 핵심 3대 경제 축 중 하나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E-BIO 순천’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바이오 산업은 일반적으로 레드바이오(의약), 화이트바이오(에너지·소재), 그린바이오(농생명)로 분류되며, 시는 이중에서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이자 도농통합 도시로서의 순천의 강점을 극대화한 전략으로, 시는 그동안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며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자원의 활용도, 기업 간 네트워크 체계, R&D 역량 및 인재양성 기반 등을 주요 조건으로 꼽았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생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통해 ‘E-Bio 순천’이라는 독창적인 산업 육성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Bio 순천’은 순천의 생태적 자산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산업 육성 모델로, 지역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를 아우르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추진된다.

특히 조성 단계부터 기업 수요를 반영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순천만의 청정 이미지를 제품 브랜드로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식품, 화장품, 펫푸드를 전략 품목군으로 설정해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전진기지로 승주읍 일원에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기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및 전남형 균형발전 300과 연계해 추진되며, 생산 시설 구축은 물론 기업과 주민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지정도 추진하고



노관규 순천시장이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록시땅 본사를 방문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집적화를 가속화하고 전남 동부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그린바이오회를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은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통해 축적한 생태·정원 브

랜드 자산이 있고 이와 결합한 ‘정경 브랜드’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E-Bio 순천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대학생 대상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구례군, 내달 5일까지 신청받아

전라남도 구례군은 오는 6월5일까지 상반기 고향의 보금자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향의 보금자리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에게 월 5만원씩 주거생활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원 대상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지역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상반기 6개월분(신입생은 4개월분)을 6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30명의 대학생에게 총 1억59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고흥군 ‘차선타일 경보장치’ 지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

전라남도 고흥군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선타일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차선타일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차선타일, 차량전방 추돌, 보행자 근접 경보 시스템, 페달 블랙박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페달 블랙박스 장치를 추가 지원해 차량 급발진 등 사고 원인을 규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군민이다.

올해 사업량은 총 60대이며, 대당 설치비용 57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고령 운전자는 오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일본 크루즈 ‘미츠이 오션후지호’ 여수항 입항

관광객 600여명 여수 유람

전라남도 여수시는 일본 크루즈 ‘미츠이 오션후지호’가 지난 9일 오전 60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싣고 여수항을 찾았다고 11일 밝혔다.

‘미츠이 오션후지호’는 길이 198m, 무게 3만2000톤의 선박으로, 일본 MOL(Mitsui Ocean cruise Line) 선사가 지난해 초 신규 취항한 국제 크루즈다.

이날 관광객들은 10시간가량 여수에 머물며 해상케이블카와 흥국사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유람했다.

이번 입항은 지난해 여수시가 ‘도쿄 포트세일즈’에 참가하며 기업 간 거래(B2B) 상담으로 MOL사와 교류를 시작한 후 지난 2월 선사 관계자를 초청, 항만시설과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계기로 성사됐다.

시는 입항 일정에 맞춰 터미널 내 임시 환전소 설치, 문화관광해설사 및 일본어 통역 배치, 관광시설 홍보부스 및 특산품 팝업스토어 운영 등으로 크루즈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 시가 마련한 전통부채에 한글 이름을 적어주는 환영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9일 일본 크루즈 ‘미츠이 오션후지호’가 여수항에 입항한 가운데 일본 관광객들이 여수시가 진행한 ‘전통부채에 한글 이름을 적어주기’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 여수시 제공

또 여행사에는 전세버스 임차비를 1회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쳤다.

일본의 ‘미츠이 오션후지호’는 오는 8

~11월 중 2차례 여수를 추가 기항할 예정이며, 미국의 ‘노르웨지안 스피릿호’도 올해 하반기 여수항 입항을 예고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말레이시아 차 문화 교류전’ 개최

전라남도 보성군은제48회 보성다향대 축제와 말레이시아 사바주(州)의 대표 축제인 카마탄축제 간 문화 교류를 기념해 오는 6월1일까지 한국차박물관에서 ‘말레이시아 차문화 교류 전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사바주의 역사·문화·예술은 물론, 원주민 전통의상, 생활 도구, 전통 악기, 차 도구, 사바의 대표 차 제품인 ‘사바차’까지 폭넓게 소개하며, 말레이시아 고유의 차 문화와 지역적 특색을 국내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특히 전시장 내에는 사바주의 대표 축제인 카마탄축제를

집중 조명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축제의 유래와 전통문화의 깊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됐다.

또 유기농 ‘보성 차’와 키나발루산 열대우림에서 재배된 ‘사바 차’의 공통점을 부각, 친환경 종이 소재로 전시 공간을 꾸며 환경과 전통이 공존하는 글로벌 전시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말레이시아 사바주 공식 대표단은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인 5월1일부터 3일까지 보성을 방문해 다채로운 교류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사바 전통공연단은 축제 현장에서 총

6회의 전통공연을 선보이며 이국적인 매력과 생동감을 더했고, 방문객들에게 사바주의 생생한 문화를 전했다. 이와 함께 사바주 관광청은 축제 기간, 사바주 관광 홍보관을 운영해 사바차 시음 행사, 관광 기념품 증정 등으로 현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사바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 보성산 말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공식 출시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차 문화 산업과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한 상호 협력 모델을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보성=양종수 기자

장흥군 ‘자~흥, 나는 향교’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선정

전라남도 장흥군은 국가유산청에서 공모한 2025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인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자~흥, 나는 향교’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향교·서원에 담긴 정신문화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해 지역사회의 대표 문화유산 활용자원으로 육성하고자 기획됐다.

해당 사업은 역사적 공간인 장흥향교와 장흥 해동사, 만수사 등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선비정신과 한국적 문화를 품은 체현,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프로그램은 4가지로 구성되며, 대표 프로그램인 ‘토끼야 향교에 베풀거자’는 장흥군 출신 이철준 작가의 판소리 동화 제목을 인용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자~흥, 나는 향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소통공간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고,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광양꿈빛도서관’ 시범 운영
두 번째 어린이도서관 개관

전라남도 광양시는 12일부터 ‘광양꿈빛도서관’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정식 개관에 앞서 시민들이 공간과 주요 서비스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시설과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양꿈빛도서관은 마동근단체육공원 인근(무등길 97)에 위치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1층에는 자율 창작공간 ‘꿈뜨락’과 교과 연계 도서 및 학습만화 공간이, 2층에는 다목적 열린 교육 공간 ‘책뜨락’과 어린이 동아 및 그림책 공간이 마련됐다. 총 1만417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화 주제는 ‘창의’와 ‘과학’이다.

특히 1층에 마련된 ‘꿈뜨락’은 광양시 최초의 어린이 자율 창작공간으로, 어린이들이 공간에 준비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정해진 규칙 없이 ‘어린이 스스로’ 구현하고 싶은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린이 1명당 1일 1회, 50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관련 문의는 광양꿈빛도서관(061-797-3963)으로 하면 된다.

도서관은 시범운영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자료 열람과 공간 이용은 가능하나 도서 대출·반납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된다.

법정 공휴일과 정기 청소일(매월 첫째·세 번째 금요일), 주말은 휴관하며 이 기간은 자료 정비 및 공간 점검 등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활용된다.

광양꿈빛도서관 개관식은 오는 6월5일 예정돼 있으며 6월7일부터는 정식 운영된다.

광양=안영준 기자